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7차 세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 , 구약성경, 공관복음서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대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 구약성경, 공관복음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구약성경의 기초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작은 섹션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구약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언약의 중재자이지만, 선지자들은 다윗의 왕(이사야 9장 6, 7절)이자 고난받는 종이 될 언약의 중재자가 올 것을 예고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아들이 주어졌으며, 정부는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모사,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의 정부와 평화의 증가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서서 그것을 굳게 세우고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붙들 것이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행할 것이라고 덧붙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실 언약의 중재자는 다윗의 왕이 될 것이지만, 고난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이 종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기능하면서, 열방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과 6장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보전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너무 가벼운 일이나 이사야 49:6 내가 너를 열방의 빛으로 삼아 내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됨을 인용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그는 나를 변명할 뿐만 아니라 책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담과 같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할 것이다. 그는 통치하는 왕으로 오지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첫 번째 오심에서는 이사야 53:3과 4가 될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슬픔을 아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자처럼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지만, 우리는 그를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서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찢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짓밟혔습니다. 그에게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징계가 있었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제 길로 돌아섰지만,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그의 굴욕 속에서 종은 언약의 중재자로서 기능하여 그의 백성이 그들의 죄에 대해 받을 만한 형벌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여겨지게 합니다. 이사야 53:11. 사도는 많은 사람이 헤아려질 것이므로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지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11.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4절에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그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베드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주 예수님께 직접 적용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를 본보기로 남기셨고 너희에게 본을 남겨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친히, 24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서 간사함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는 이사야 53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의 구약성서 기초에서 세 가지 큰 그림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백성에게 동일시를 줍니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고 그는 그들의 신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입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 집단적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참여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약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궁극적인 언약의 중재자로서 그 안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그의 이야기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일어났으며, 골로새서 2:20, 골로새서 3:1, 그리고 그와 함께 앉았습니다, 에베소서 2:6. 구약은 이런 용어로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이야기에 포함시킬 때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한다는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신약에서 더 명확해지지만,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을 통해 그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쓰신 이야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봅니다.

이 참여의 원리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가 그의 백성을 만들고 그의 백성에게 정체성을 줄 때, 그들은 그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로써 그의 이야기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와 언약을 맺을 때, 그는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통합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와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백성에 속하는데, 이는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의 선취입니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의 백성 안에 두겠다고 약속하신 구절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 두 가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에스겔 36:24~28. 이 구절은 그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새 언약의 구절이지만, 전달된 아이디어에 의해 신약의 언약 구절입니다.

더러움 과 모든 우상에서 깨끗하리라 .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니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며 내 규례를 주의하여 지키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는 땅에 거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의 거룩한 명성을 입증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그가 주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 36:22, 23,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36 까지. 그는 그 이상을 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 모으는 것 이상을 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들을 죄에서 정화할 것입니다. 25, 29, 33절.

그는 새로운 마음과 영을 줌으로써 이를 행할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은 26 절의 신약의 거듭남 교리와 유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니 너희 속에 두리라.

나는 네 육신에서 돌의 마음을 제거하고 살의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 대한 새로운 순종으로 이어질 것이다—27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업적으로 거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약의 배경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된 신약의 주제. 에스겔 37:11~14.

그러자 주께서 사람의 아들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의 집이다. 보라, 그들이 말하길, 우리의 뼈는 말라붙었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다. 우리는 참으로 끊어졌다.

그러므로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무덤에서 일으키리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무덤에서 일으킬 때, 너희는 내가 주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아.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너희는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말하였고, 나는 그것을 행할 것이다, 주님의 선언이다. 에스겔 37 장은 이전 장에서 시작된 주제를 계속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 주는 힘으로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의 골짜기를 보고, 신에게 순종하여 그들에게 예언합니다. 예언자의 말에 뼈가 덜거덕거리며 합쳐지고 힘줄과 살로 덮입니다. 다시 에스겔의 말에 시체에 숨이 들어오고, 시체가 살아나서 일어서서 큰 군대를 이룹니다.

1절에서 10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흠어진 그의 백성을 재창조하고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12절과 14절.

에스겔의 말씀은 다시 한번 신약의 가르침을 예시합니다. 14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너는 살 것이다.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 것이다. 내가 말했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영을 주고 그들 안에 두심으로써 죽은
 흠어진 이스라엘을 살리실 것이다. 오순절에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그들
 안에 두심으로써 그의 신약 성도들을 살리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신약 교리의 구약 기초에 대한 마무리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구약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그것을 예고합니다. 첫 번째는 동일시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언약의 임재를 통해 그의 백성과 동일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그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적
 현존의 탁월함으로서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예고합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신약 성도들의 정체성을
 예고합니다. 둘째, 통합.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통합하십니다.

그들은 언약의 중재자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구약에서 이들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중재자는
 탁월한 다윗의 왕이자 고난받는 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는 그의 죽음에서 중재함으로써 그의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그의
 부활에서 그들을 하나님께 살아있게 합니다. 그는 고난을 겪기 위해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자 탁월한 통치를 하기 위해 두 번째로 올 것입니다.
 셋째, 참여.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이야기에 참여합니다. 신약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과 그의 사역, 오순절을
 포함하여 성취될 때 일어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약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기초를 마련합니다.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연합의 기초. 다시 한번, 저는 제 전 조수였던 카일 키팅에게 많은 좋은 연구와 심지어 글을 써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공관복음서는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사렛.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열방의 빛이 될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루가복음 2:32와 비교해보세요. 구약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예고한다면, 공관복음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찾기 시작하기에 합당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왜? 첫째, 복음서는 교훈적인 가르침으로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더 중점을 둡니다. 교리가 등장하는 경우, 교리 자체보다는 이야기의 일부로서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공관복음서의 구속사적 맥락은 대부분의 서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앞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뿌리를 둔 교리라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완전한 설명을 기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설명은 모두 요한복음에도 해당하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보다 연합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분명히 언급하는 요한의 모든 본문은 그에게만 고유하며, 고유한 출처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주제적 차이는 다른 초점을 시사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아버지, 예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이나 예수님의 구약 성취와 같은 다른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데 시간을 덜 할애합니다. 그렇다면 공관복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은 신자들이 연합하는 것의 실제적 확립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말할 때, 암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입니다. 공관복음서는 이 질문에 답하며, 예수의 정체성과 사명을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 공관복음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신학적 토대를 확립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연합을 위한 진정한 구속적 역사적 토대를 확립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연합은 우리가 구약에서 본 것과 같은 세 가지 개념, 즉 예수를 임마누엘로 동일시하고 신랑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통해 확립됩니다.

예수를 통한 통합은 탁월한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예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반복하겠습니다.

예수를 에마누엘과 신랑으로 동일시함. 예수를 통해 탁월한 언약의 중재자로 통합함. 그리고 셋째, 예수의 이야기에 참여함.

예수를 임마누엘과 신랑으로 동일시함. 예수를 임마누엘로. 공관복음서는 예수를 임마누엘로 제시할 때 동일시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암시한다.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적 임재를 통해 그의 백성과 동일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동일시라는 주제를 발견합니다. 마태는 이사야 7:14를 인용하여 예수의 탄생에 적용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황하여 천사가 환영의 메시지를 전할 때까지 조용히 이혼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녀와 결혼하세요, 요셉. 그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20-23.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뜻이다. 마태는 예수님을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제시한다. 마태는 두 번 더 같은 것을 한다.

마태복음 18:19-20에서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19, 20.

찰스 콰를레스 , 콰를레스, 찰스 콰를레스 중요한 함의를 도출합니다 . 마태복음 1:23, 임마누엘 진술, 마태복음 28:20은 복음 전체를 괄호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복음의 끝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예수님의 확신으로 성취됩니다.

찰스 L. 콰를스, 마태의 신학, 예수는 구원자, 왕, 그리고 육신을 가진 창조자로 계시되었다. 예수가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한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은 세 번째 약속을 담고 있다. 인용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인용문 닫기, 마태복음 18:20. 다시 말해서, 콰를스는 "따라서 마태복음 18:20은 삼위일체의 요소이며, 예수라는 인격 안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확증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느님은 예수라는 인물로 그들을 방문함으로써 그의 백성과 동일시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내주하는 영과의 연합을 기대합니다. 신랑으로서의 예수. 마태와 마가의 또 다른 기록은 결혼의 상징을 사용하여 예수께서 그의 백성과 어떻게 동일시하는지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9:14, 15는 읽어볼 만합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혼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은 애통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이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이 올 것이요, 그때에 그들은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결혼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의 의미를 보여 주셨습니다.

DA 카슨의 마태복음에 대한 해설을 들어보세요. “예수의 대답은 암묵적으로 그리스도론적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적 신랑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신랑이라면 신부는 누구일까요? 구약의 이미지에서 신랑은 야훼이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신부입니다. 이사야 62:5, 호세아 2:19, 20을 비교해 보세요.

이사야 62:5, 호세아 2:19, 20.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신랑으로, 그의 백성인 교회를 그의 신부로 언급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25, 27, 고린도전서 6:15-20, 고린도후서 11:1-5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결혼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25, 27, 고린도전서 6:15-20, 고린도후서 11:1-5입니다. 이 이미지의 결과는 바울의 작업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기초를 놓습니다.

예수는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는 신랑이 결혼식 날 신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처럼 그의 백성과 동일시합니다. 탁월한 언약 중재자로서 예수를 통한 통합.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그리고 그의 신랑이 되심은 그의 암시된 백성, 그의 백성, 교회와 함께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의 임재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식별합니다. 이제, 통합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던 이 공동체적 악센트를 가져옵니다. 탁월한 언약적 중재자로서의 예수를 통한 통합.

공관복음서는 예수를 궁극적인 언약 중재자,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 대표자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언약 중재자가 통합된 것을 보았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를 새롭고 더 큰 이스라엘로 제시합니다.

변형에서 베드로가 자기와 야고보, 요한에게 손님 모세, 엘리야, 예수를 위해 천막 세 개를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하느님께서 방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34, 35. 하, 하느님께서 방해하셨습니다.

피터, 또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군요. 스승님, 여기에 텐트를 세 개 만드는 게 우리에게서 좋은 일이에요. 오, 이런.

하나를 당신을 위한 것, 하나는 모세를 위한 것,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것입니다. 누가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 채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할 때, 누가복음 9:34.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신의 존재의 구름이요, 그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음성이 말했을 때, 예수는 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택함받은 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인용문을 대표하여 예루살렘에서 이루어던 그의 떠남에 대해 말했습니다(31절). 흥미로운 언급입니다. 저는 이전 강의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 단어를 두 가지 방식으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출발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탈출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의 죽음입니다 .

그러나 이 세상에서 떠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의 탈출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이집트를 대대적으로 구출하신 구약의 사건이 그리스도만이 그의 백성을 위해 한 번, 영원히 성취하실 대대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전형이었던 전형입니다. 하늘에서 하느님의 아들, 이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는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아들인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를 묘사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칭호, 그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입니다. 이는 이 결론을 확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택한 자, 메시아이며, 이스라엘을 유일하게 완벽하게 충실한 이스라엘인으로 대표할 것입니다. 대럴 복은 간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택함받은 자, 예수라는 두 가지 칭호를 합치면, 예수는 메시아적 종으로 식별됩니다.” Darrell Bock, Baker의 신약성경 주해 주석, 누가복음 1권. 메시아로서 예수는 탁월한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궁극적인 언약 중재자입니다. 마태는 시작의 세대를 통해, 그의 복음서의 시작에 있는 족보를 통해, 예수를 다윗과 아브라함과 연결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마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 다윗과 아브라함은 모두 구약의 언약 중재자였습니다.

마태의 족보는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종류의 언약의 중재자임을 보여 주지만, 그는 그들보다 더 위대합니다. 콰를스는 마태 복음 1장 1절을 요약합니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다윗, 우리의 왕입니다. 그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는 새로운 아브라함, 우리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선택된 백성을 창조함으로써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열방에 빛이 될 것입니다.”

예수는 언약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과 우리가 본 것처럼 에스겔 36, 37장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는 빵을 떼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누가복음 22:19, 20). 예수는 자신이 중보자인 새 언약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하셨으며, 이는 주님의 만찬에서 봉인되고 기념되었습니다.

세 개의 공관복음서 모두 예수의 메시아적 신임장을 확립합니다. 각 복음서의 마지막에는 예수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라는 이전 언약의 중재자들을 따르는 메시아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식별하는 데는 언약의 중재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는 현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백성이 결합되고 대표되는 언약의 중재자로 확립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관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체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과 동일시하시고, 그런 다음 자신과 언약의 중재자이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예수의 말씀에 함축된 통합은 물론 개인으로서, 그리고 바울이 명확히 밝힐 것처럼, 몸으로서, 자신의 몸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백성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 번째 구약 주제는 공관복음서에서 올려 퍼집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의 성육신에서 부활까지 예수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참여의 언어는 우리가 그의 이야기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의 지상 생활 이야기를 형성하는 사건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공관복음서는 예수의 이야기를 묘사하는 동시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야기도 보여줍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의 이야기를 그가 역사에서 이룬 것에 따라 이야기합니다. 참여가 그가 이룬 일에 대한 공유를 보장한다면, 그 일은 무엇일까요? 공관복음서는 예수의 동정녀 잉태와 성육신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8-25. 누가복음 1:26-38. 누가복음 2:6-7.

우리는 그것을 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맏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 에 뉘었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 사람이 이름이 있다고 말하며,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들었습니다. 이는 구세주 또는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예수의 성육신이 독특하지만 인간과 신 사이에 일종의 결합을 확립한다는 것을 초기부터 이해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위격적 또는 개인적 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성한 아들은 자신에게 인성을 취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두 가지 본성, 즉 하나는 신성하고 하나는 인성을 가진 한 인격이 되었습니다.

두 본성은 그의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연합은 인격적 또는 실체적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맺은 연합은 이 독특한 실체적 연합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인간이 아니지만 실체적 연합은 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내려와 두 사람 사이에 연합을 수립할 수 있는지 보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독특한 성육신은 구원에서 우리와 그와의 연합의 기초입니다. 영원한 아들인 그는 자신을 위해 사람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인간 본성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였고 모든 어머니가 아들에게 제공하는 것, 즉 DNA와 염색체를 그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녀의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었습니다. 성육신은 영원한 아들이 현존하는 인간을 입양함으로써가 아니라 마리아의 태내에서 인간적 본성을 취하여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성육신은 우리가 그와 연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관복음서는 성육신을 소개하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한다고 자주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건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바울의 서신에서 신자들이 참여한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공관복음서에 대한 결론. 공관복음서에서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에 대한 이 간략한 조사는 교리, 공식적인 가르침으로서의 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신 우리는 구속적-역사적 의미에서 제시된 연합의 그림을 발견합니다.

공관복음서는 믿는 이들이 구원에서 연합되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처음 세 복음서는 바울이 나중에 그들이 참여한다고 말할 사건들을 서술합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를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그의 백성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거처를 나타내며, 그는 죄 없는 삶,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의 덕택으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때 그의 백성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주적 거처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가능하며, 그것은 그의 속죄와 승리의 사역의 필수적 전제 조건인 그의 성육신과 물론 그의 죄 없는 삶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를 임마누엘로 묘사하고 그를 상징적으로 신랑으로 소개하며, 그가 그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통해 그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제자들, 나의 제자들은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습니다.

신랑이 그들을 떠나는 때가 올 것이고, 그때 그들은 금식할 것입니다. 오, 그렇습니다. 신랑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지만, 그는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성령은 다른 것들 중에서도 그들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구원 안에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것입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을 모든 언약 중보자를 능가하는 언약 중보자, 탁월한 언약 중보자로 묘사하며, 그는 신자들을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그리스도교 교회에 통합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신자들에게 그를 따르고 제자로서 그의 이야기에 참여하라고 촉구합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에 이르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적 사건들이 확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를 펼치는 다음 단계는 그 연합이 교회의 삶 속에서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 다시 한번, 카일 키팅은 이 좋은 자료를 위한 나의 파트너, 일꾼, 도우미였습니다.

연합은 바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공관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를 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구원에 대한 강조가 있지만, 구원의 방법보다는 구원의 내용에 대한 강조가 더 큼니다.

사도행전은 서신서처럼 직접적인 교훈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서사적이고 연설 중심적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교리를 가르치는지 묻는 것은 본문의 의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만, 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설명하는지 평가할 때 사도행전의 장르, 즉 장르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앞의 두 제목과 동일한 세 가지 개념을 봅니다. 동일시, 통합, 참여. 동일시, 통합, 참여. 성령의 사역에서의 동일시,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의 회심에서의 동일시.

세례 의식에 통합됨. 예수 이야기의 반복과 루가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을 사용한 것에 참여함. 성령의 사역과 바울의 회심에 대한 동일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하위 집합으로서의 동일시 개념. 성령의 사역과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교회를 가장 크게 박해하던 자에서 교회의 위대한 지지자로 개종한 기록에 나타난다. 성령의 사역에서의 동일시.

구속사적 관점에서 오순절은 사도행전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약속된 성령이 사람들에게 내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에 전수합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성령에 초점을 맞추지만, 성령은 다른 두 가지 중요한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는 오순절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누가복음 11:13)와 제자들이 직면했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대한 성령의 인도에 대한 예수님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사도행전에서 박해에 직면했을 때의 사도들의 경험을 예고합니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을 준비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고,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6:7). 그는 예수를 취하여 제자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15절).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사도들 사이를 중재하여 그리스도의 계시를 취하여 제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는 다 그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오른편에 높이 올려지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으신 그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행 2:32, 33). 예수께서 오순절에 그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구약의 예언인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인용문: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다니 인용문: 에스겔 36:27). 누가는 오순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지만, 신약의 나머지 부분은 설명합니다.

로버트 레섬은 오순절의 한 측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것입니다." 레섬의 책, *성경, 역사, 신학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따라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오순절은 성령의 거하심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의 사역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나머지 신약은 사도행전에서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장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성령의 사역을 위한 구속적 역사적 전제 조건으로 기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동일시하고, 다시 동일시하고, 그의 영으로 그들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풀어놓은 사역에 참여하시는 순간이며, 그 사역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에서의 동일시. 바울의 회심, 특히 사도행전 9장과 그의 서신의 신학, 특히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이에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인 로마서 11장은 그의 신학적 사고에서 명확한 역할을 합니다.

타르수스의 사울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여행합니다. 도중에 그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멀게 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나는 너희가 박해하는 예수다, 4절과 5절. 여기서 핵심은 예수의 자기 정체성이다. 첫째, 그는 자신을 신현의 신으로 규정한다. 둘째, 예수는 자신을 유아 교회로 규정한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께서 사울에게 물으셨는데, 사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훌륭한 해설을 한 데이비드 피터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설 중 하나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박해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셨고, 교회와 분명히 동일시하셨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가 겪으셨던 것처럼 고통을 겪고, 그는 그들의 투쟁에 동일시합니다.

인용문 닫기. 캠벨이 그의 책, 바울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바울의 신학 발전의 원래 촉매는 바울의 말씀,

즉 다마스쿠스 길에서 바울에게 한 예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인용문 닫기.

누가가 오순절을 기록한 것과 누가가 바울의 회심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의 백성과 자기 동일시하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바울은 나중에 그것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경험한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확장한다. 기독교 세례 의식에 통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통합 측면은 사도행전에서 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표식으로 기능하며, 이 표식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의 마지막인 238절에서 회개하고 각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것입니다.

41절에서 그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에 믿음을 암묵적으로 포함시켰음을 나타냅니다. 41절은 그의 말씀을 받은 자들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읽고 회개하라는 명령이 믿음의 회개, 즉 죄에서 돌이키는 믿음, 회개, 복음에서 제시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믿음이었던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정당한 추론입니다. 41절에서 그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에 암묵적으로 믿음을 포함시켰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복음적 반응을 회개와 세례로 요약합니다.

회개는 다음을 수반합니다. 회개는 군중이 예수를 거부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23절에서 세례는 믿음을 포함하고 충성심의 변화로 기능하지만 유대인 군중은 한때 예수의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새 언약의 언약 회원 자격의 표시, 예수와 그의 백성에 대한 통합의 표시가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전형적인 바울의 그리스도 언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유사한 것을 보는 것은 누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한 논의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적어도 12번이나 누가는 사도들의 사역, 특히 치유와 세례를 언급하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크레이그 키너는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의 추종자가 될지 지정했다고 언급합니다. 키너의 *사도행전, 주해적 주석*.

우리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추론할 수 없습니다. 세례는 회개와 믿음의 물리적 표현이자 교회에 통합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소유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세례는 이것이 예수의 세례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의 추종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마무리하고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데 참여하는 것과 누가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7,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 구약성경, 공관복음서입니다.